

“현장 중심 실사구시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 것”

민선 6기 2년 설계
정 현 복 광양시장



“민선 6기 2년차 시장은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 대한민국 행복수도를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는 일에 시장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취임이후 6대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있는 문화·관광 도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녹색·생태 도시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시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선진자치 도시를 추진해왔다.

특히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와 육곡 5일시장 시설현대화, 목성지구 도시개발 등 단기 90개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1만개, 우량기업 153개 유치,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중기 47개사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 추진
지자체 첫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3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총력

업을 추진중이다.

또 장기 사업으로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 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 대학병원 유치를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 시장은 3대 시정성과를 꼽았다. 우선 교육 분야에 매년 100억원 이상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서울대 18명을 포함해 주요 대학에 249명이 대거 합격하며 교육도시 이미지를 높였다.

두 번째 성과로는 지지부진했던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L.F패션아울렛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조기 대응해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세 번째 성과로는 꽃잔디 100만 본 식재와 들레길, 꽃동산 조성을 통해 정원 같은 도시로 탈바꿈시켜 산업도시에서 ‘힐링 도시’ 이미지로 변모했다.

이 밖에 주요 성과로 시 재정 6000억원 시대

개막, 2100억 원(MOU 포함)의 투자유치와 2770개의 일자리 창출,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정 시장은 예산 전문가답게 취임 1년 만에 2014년 대비 11%(610억원)가 증가한 6000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정 시장은 취임 초부터 행정의 기본은 재정확충이 필수라며 국·도비, 기금 확보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하며 전 공직자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민선 6기 들어 조직개편에서 ‘국·도비팀’을 신설하고,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부서장과 함께 수시로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방문해 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해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지방교부세가 138억원으로 증가했고, 보조금 123억원, 지방세 81억원, 세외수입 62억원, 조정교부금 14억원, 기타 192억원 등이 늘었다.

정 시장은 민선 6기 2년차부터 시장 운영 방향을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사구시 행정’, ‘시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소통 참여행정’을 시장 기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취임 초 발표한 공약이행을 발판으로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닦는데 모든 시장의 역량을 집중

해 나갈 계획이다.

정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각종 대형 개발사업 조기 마무리 ▲모든 시민들이 고무 잘사는 교육·복지 실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꽃과 숲이 어우러진 힐링 도시 ▲농업의 다각화로 부강한 농촌 실현을 약속했다.

정 시장은 “6대 역점 시책사업의 본격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기금 10억원을 조성,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을 위해 하반기 시의회를 설득해 차별화된 어린이 보육지원 사업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L.F아울렛 등 대형 투자 사업을 추진하며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시장은 “15만 시민과 함께 위대한 광양, 더 큰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사구시 행정, 시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소통의 참여행정을 기조로 위대한 광양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배영재기자 byj@

“이제는 백학동입니다”

진상면 신항마을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

백학 주제 새 관광명소 육성

광양시 진상면 신항마을이 백학(白鶴)을 주제로 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된다.

광양시는 “진상면 신항마을이 최근 전남도 주관의 ‘주민주도형 매력있는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청학동? 이제는 백학동입니다!’란 주제로 응모해 신항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우월성을 지리산 청학동과 비교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항마을은 5월에 실시된 서면평가에 이어 현장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이달부터 총 3억원(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백학을 소재로 마을주변에 백학조형물 설치하고 벽면에는 백학 벽화를 조성한다.

또 마을내 자투리땅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고 마을담장과 지붕 정비 등을 실시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특히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백학을 소재로 한 지역 축제를 개발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 다.

광양시 김세화 도시경관팀장은 “앞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의 설화 등 무형 자산을 스토리텔링화하고, 백학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어 매력 있는 디자인 명소가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주도형 매력있는 디자인 마을 가꾸기’는 마을에 산재해 있는 자연·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7만여명 수용 7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 박차

공영·민간 442만㎡ 규모

안정적인 택지 공급기로

광양시가 공영·민간 개발을 통해 수용 인구 7만6349명(2만6258세대) 442만㎡ 규모의 7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과 세 풍산단 건설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다.

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성항·도이지구 등 3개 지구(183만㎡)에 8856세대(23914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마동 와우마을 일원 63만7000㎡의 택지를 개발하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영동과 옥곡면 신관리 의암마을 54만 6000㎡의 택지를 개발하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4월 토목공사에 착공해 지장물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기가 끝나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토공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성항·도이동 일원(64만7000㎡)에

2640세대(7127명)를 수용할 계획인 ‘성항·도이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와 하반기 토목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업체에서도 광양 목성지구, 중동지구, 황금지구, 황길지구 등 4개 지구(259만㎡) 1만7402세대(5만2435명)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부영주택에서 추진하는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선 6기 대표공약인 광양읍권 발전 5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다. 협의보상 착수 49일 만인 지난 5월 사유지 목표 대비 102%를 협의 보상 완료했으며, 6월 말 현재 전체 사유지 86%



와우지구 조감도

협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주)리에서 추진하는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616세대의 분양을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 입주 목표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조항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금지구와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지원센터 개소

광양시가 지난 1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통합 응급안전 지원센터’(이하 통합 응급안전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안전기기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U-어르신 돌보미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통합 응급안전 지원센터’는 U-어르신 돌보미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독거노인과 더불어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대상은 시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1500명과 장애인활동 지원을 받는 1·2급 중증장애인 77명 등 총 1577명이다. 5명의 응급관리요원이 전담해 관리하게 된다.

통합 응급안전 지원센터는 앞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 호출버튼 등 총 7종류의 장비를 가정에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APT 담보대출 + **회원전용신용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 감정가대비 70%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 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소 월납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